

# 카타르월드컵 8강 대진 완성

브라질-크로아티아  
아르헨-네덜란드  
포르투갈-모로코  
잉글랜드-프랑스  
4강 진출 두고 격돌



6월(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모로코와 스페인의 경기, 모로코 선수들이 승부차기에서 스페인에 3-0으로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스위스를 꺾고 올라간 포르투갈은 11일 새벽 0시 알부마마스타디움에서 스페인을 격파한 돌파한 돌풍의 팀 모로코를 만난다. 포르투갈은 2006 독일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4강에 도전하고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4강 진출을 노린다. 세네갈을 이긴 잉글랜드와 폴란드를 꺾은 프랑스는 11일 오전 4시 알베이 스타디움에서 격돌한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맞대결은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평가받는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는 2연속 우승을 노린다. 러시아 대회 4강에 오른 잉글랜드는 1966 잉글랜드월드컵 우승 이후 첫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다. /뉴시스

2022 카타르월드컵 8강 대진이 완성됐다. 7일(이하 한국시간) 16강전에서 모로코가 스페인을,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이기면서 이번 대회 8강 대진이 나왔다. 한국을 16강에서 꺾은 브라질이 오는 10일 새벽 0시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일본을 꺾은 크로아티아를 상대한다.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는 2014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브라질이 3-1로 이겼다. 2006 독일월드컵 조별리그에서도 브라질이 1-0으로 승리한 바 있다.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을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주를 누른 아르헨티나는 10일 오전 4시 루사일스타디움에서 미국을 꺾은 네덜란드와 맞붙는다. 양 팀은 2014 브라질월드컵 4강에서 맞붙었고 당시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 손흥민 트레이너, 축구협회 겨냥

### “제 식구 챙기지 말라”

대표팀 선수 관리 안덕수 “상식 밖의 일 발생”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고 개선해야”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을 관리한 안덕수 트레이너가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 글을 올렸다. 안 트레이너는 7일 인스타그램에서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진이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대로는 끝내지 말자며 2701호에 모여 했던 2701호 결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701호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01호가 왜 생겼는지는 기자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시고 개선해야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저 또한 프로축구팀에 20여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기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트레이너는 또 “바꾸세요. 그리고 제 식구 챙기지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안 트레이너는 손흥민의 개인트



안덕수 인스타그램 사진. (사진=안덕수 인스타그램 갈무리)

레이너로 런던에 상주하며 손흥민을 관리해왔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을 위해 안 트레이너와 함께 카타르 도하로 건너왔다.

안 트레이너는 카타르 현장에서 대표팀과 같은 숙소에서 머물렀고 숙소는 2701호 추정된다. 객실료는 손흥민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로 글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동안 손흥민을 포함해 다른 선수들은 축구협회가 고용한 트레이너가 아닌 2701호에서 안 트레이너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된다. /뉴시스

## 탁구협회, 탁구 유망주 4명 대상 특별 훈련 실시

마영민·유선호·이혜린·윤서윤 등 참가  
기본 체력 훈련·기술 향상 훈련 받을 예정

대한탁구협회가 탁구 체육 영재 특별 훈련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체육 영재 특별 훈련은 꿈나무 선수 중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인 소수 정예 선수들을 선발해 국내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특별 지도를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육성 사업이다. 이번 훈련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원 경기대와 대전동산고, 대전호수동여고 등에서 열린다. 마영민(남, 의령남초), 유선호(남, 부천오정초), 이혜린(여, 서대전초), 윤서윤(여, 서대전초) 등 4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기본적인 체력 훈련과 기술 향상 훈련을 받는다. 메달리스트이자 전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인 추교성 금천구청 탁구단 감독, 현 한국프로탁구리그(KTTL) 위원장인 안재형 위원 대전시살관리공단 탁구단 서동철 감독이 강연한다.



대한탁구협회 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인 유지혜 코치는 “이번 특별 훈련을 통해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린 선수들의 특별한 재능이 실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훈련에 임하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한탁구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에서 올해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동계 합숙훈련을 했다. 조용순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전임감독과 김태준 차종윤 최정민 최주성 전문지도자가 남자선수 16명, 여자선수 16명 등 모두 32명과 합숙 훈련을 했다. 조용순 전임감독은 “금번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대표선수촌이라는 뜻깊은 공간에서의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참가 선수 중 일부 인원은 현재 튀니지에서 진행 중인 2022 ITTF 월드 유스 챔피언십에도 파견됐다. 합숙훈련 성과가 해당 대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MBC, 브라질전 시청률 10.7%  
월드컵 중계 시청률 1위 기록

MBC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7일 밤스페인에 따르면 MBC가 전날 오전 2시54분~오전 7시까지 중계한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브라질 경기는 전국 시청률은 10.7%를 찍었다. SBS는 5.8%, KBS 2TV는 2.7%에 그쳤다. 지상파 3사 시청률 총합은 19.2%다. MBC는 해설위원 안정환·서형욱과 캐스터 김성주를 내세웠다. H조 조별예선 우루과이전(18.2%)을 시작으로 가나전(20.0%), 포르투갈전(16.9%)까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SBS는 해설위원 박지성·이승우, 캐스터 배성재, KBS는 해설위원 구자철·캐스터 이광윤이 중계를 맡았다. KBS는 내내 팔찌를 기록했다. 이날 과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대4로 패했다. 전반에만 네 골을 허용했다. 후반 교체 투입한 백승호가 골을 넣었지만 역전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뉴시스

##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본격

지난 6일부터 선거운동 돌입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17개 시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5일 시도체육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으며 6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4일부터 5일까지 시도체육회장 후보자를 등록 받았으며 그 결과 총 48명이 등록하고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민선1기 선거 시 총 43명 등록에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가능하고 가족 등 제 3자는 불가하며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이용 △윗웃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 토론회 및 선거일 소견발표 등이다.

한편 관할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 금품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지수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도체육회장 선거에 이어 22일 실시하는 228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시도체육회장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